

삼성전자, 메타 제치고 글로벌 시총 10위로

한때 테슬라 추월...3.30% 상승 1조5600억달러 한국증시, 올해 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 제쳐

삼성전자가 2일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시총액 순위에서 10위로 뛰어올랐다. 미국 시총액 조사 사이트 컴퍼니마켓캡(companymarketcap.com)은 이날 삼성전자 주가가 3.30% 상승 마감하면서 시총액이 1조5600억달러로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메타플랫폼스(1조5240억달러)를 제치고 11위에서 10

위로 한 계단 올라서게 됐다. 장중에는 한때 주가가 6% 넘게 오르며 9위인 테슬라(1조5610억달러)까지 추월하기도 했다.

1위는 엔비디아(5조4340억달러)이고, 2~5위는 알파벳(4조5130억달러), 애플(4조4980억달러), 마이크로소프트(3조4200억달러), 아마존(2조8100억달러)이다.

6위와 7위, 8위는 각각 TSMC(2조2590

억달러), 브로드컴(2조1770억달러), 사우디 아랍코(1조7630억달러)가 차지하고 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이날 주가가 0.13% 하락하면서 시총이 1조1040억달러로 소폭 감소, 12위에서 13위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컴퍼니마켓캡닷컴은 전했다.

한편 컴퍼니마켓캡닷컴은 국내 142개 주요 상장사 기준으로 한국 주식시장 시총액이 이날 현재 4조4180억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을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다.

1위는 미국(3525개사·77조7520억달러)이고, 2위는 중국(482개사·11조560억달러), 3위와 4위는 일본(710개사·7조4030억달러)과 영국(472개사·4조6970억

달러)이다.

이와 별개로 블룸버그 통신은 1일 기준으로 코스피 시총액이 올해 들어 86% 급증한 5조420억달러(약 7550조원)로 집계돼 인도 거래소 시총(4조8430억달러)을 넘어 세계 6위 시장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증시 규모는 올해 들어 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를 차례로 제쳤다.

현재 한국보다 큰 주식 시장은 미국(79조4700억달러)·중국본토(15조900억달러)·일본(8조6300억달러)·홍콩(7조2400억달러)·대만(5조1500억달러) 등 5 곳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삼성전자
360,500
▲ 11,500 (3.30%)
Hana Bank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11p(0.15%) 오른 8801.49에, 코스닥은 24.00p(2.29%) 내린 1026.03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 넘게 급등하며 36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광주도시공사, '누구나집' 추진 임대리츠 설립

지난달 27일 법인 설립·사업자 등록 마쳐며 본궤도 진입 부채 상승 없는 선진기법 도입... 공공디벨로퍼 위상 확립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건립 사업을 이끌어갈 임대리츠(REITs) 설립 절차를 마무리했다.

2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해당 사업의 주체인 (주)광주에너지밸리민간임대주택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 설립을 마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지난 4월 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우미건설 컨소시엄 간 사업 재편 이후 본궤도에 오른 에너지밸리 '누구나집'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리츠 방식 도입은 공사의 재무 건성 확보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차입금

이 공사의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재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이렇게 확보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광주도시공사는 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예정이다.

이번 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광주도시공사는 하반기 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투자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리츠 영업인가를 획득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이후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착공으로

이어지는 세부 로드맵을 기민하게 추진해 적기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승남 사장은 "이번 임대리츠 설립은 단순한 주택 건설을 넘어 무주택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와 든든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선진화된 금융 기법을 활용해 공사의 재무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공공기관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공적인 주거복지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남뉴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젠슨 황, 한국 AI 스타트업 만난다...업스테이지 참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기간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와 만난다.

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8일 업스테이지 등 국내 로봇·AI 스타트업과 서울 신라호텔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업스테이지도 참석한다.



지난 1일 대만에서 열린 엔비디아 연례 기술 전시회 'GTC 타이베이'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 네 번째), 과노경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왼쪽 세 번째) 등 SK그룹 경영진이 젠슨 황 CEO(왼쪽 네 번째) 등 엔비디아 경영진과 비공개 회동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로봇·AI 스타트업 CEO들과 8일 간담회 인공지능 인프라·피지컬 AI 협력 가능성 주목

부회동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황 CEO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비버 1784 사옥을 찾는 방안도 네이버 측과 현재 조율 중이다. 방문일은 8일

이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제2의 사옥인 1784는 로봇과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5G 통화망 등 네이버의 미래 기술이 집약된 공간으로 꼽힌다.

엔비디아 젠슨 황 방문 일정 비교

2025년 10월 방문	2026년 8월 예정
1박 2일 경주 APEC CEO 서밋 참석차 방문	최소 4박 5일 방문 예정 (구분: 3박 4일, 2박 3일)
인도네시아 페탈링 지방	일본 방한
한국 정부-기업에 엔비디아 플랫폼 GPU 20만 대 공급	주요 AI 스타트업 방문
황, 김성훈, SK그룹 과노경 등, 비공개 회동	주요 AI 스타트업 CEO들과 간담회
만나는 주요 인물	김성훈, SK그룹 과노경, SK그룹 이철우, SK그룹 이철우, SK그룹 이철우
상호협력 강화 기대	상호협력 강화 기대
지프스, 케어, 엔비디아, SK그룹	주요 AI 스타트업 CEO들과 간담회
연남뉴스	연남뉴스

아울러 황 CEO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경기 시구자로 나서고, tvN 토크쇼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연남뉴스

한국농어촌공사는 본격적인 홍수기를 앞두고 전남 나주 분사에서 '2026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추진사항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로 이어지는 단계별 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중 사장은 "풍수해 대응의 핵심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가 아니라, 발생 전 위험 요인을 먼저 찾아내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저수지와 배수장, 건설 현장 등 주요 시설물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선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농어촌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는 올해 여름철 기상 전망 공유를 시작으로 그간 추진 상황 점검과 향후 중

농어촌공사, 풍수해 대응체계 점검

김인중 사장 "홍수기 앞두고 선제 대응으로 피해 감소 주력"

점 추진 대책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인중 사장은 "풍수해 대응의 핵심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가 아니라, 발생 전 위험 요인을 먼저 찾아내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저수지와 배수장, 건설 현장 등 주요 시설물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선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농어촌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는 올해 여름철 기상 전망 공유를 시작으로 그간 추진 상황 점검과 향후 중

장 정비·보수 등을 마쳐 풍수해 대응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과학적 재난 대응 체계도 가능하다. 공사는 '인공지능 수위예측 모델'을 활용해 기상청 강우 예보와 저수지 수위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6시간 후 저수지 수위를 예측하고, 위험수위 도달이 예상되는 저수지는 방류 등을 통해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김인중 사장은 "공사는 예방 중심 재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농어민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수기 전 재해복구사업, 사전 방류시설 설치, 배수로 준설, 배수펌프

장 정비·보수 등을 마쳐 풍수해 대응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과학적 재난 대응 체계도 가능하다. 공사는 '인공지능 수위예측 모델'을 활용해 기상청 강우 예보와 저수지 수위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6시간 후 저수지 수위를 예측하고, 위험수위 도달이 예상되는 저수지는 방류 등을 통해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김인중 사장은 "공사는 예방 중심 재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농어민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수기 전 재해복구사업, 사전 방류시설 설치, 배수로 준설, 배수펌프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농협, 스마트농업·농촌복지 확대 추진

스마트팜 2000개소로 확대·계절근로자 5039명 공급

농협중앙회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과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농 중심의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농촌 왕진버스 및 이동장터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농협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지난해 1600개소 수준이었던 스마트팜 보급 규모를 올해 2000여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2분기부터는 현장 중심 컨설팅을 병행해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활용 역량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농협은 올해 운영 농협 142개소를 확정했으며, 총 5039명의 계절근로 인력을 농촌 현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농촌 의료복지 서비스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총 353회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말 기준 약 1만4000명의 농업인의 의

료서비스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가 경영 안정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농협은 앞서 농업인과 소비자 지원을 위해 총 114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유통 분야에서는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주력한다. 올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목표를 1300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거래 규모를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지난 1월 신설된 생산적 금융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시민을 위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농협목우촌의 반려견 간식 브랜드 '명수무강'을 다이스에 입점시킨 데 이어 온라인 판매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반려묘 전용 브랜드 '냥수무강'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 주택가격 회복에 '역전세난' 우려

전세 수요 감소속 1분기 매매가 7.9% ↑...광주는 정체

도시연구소, 실거래가 분석

전국 주택시장이 거래 회복 흐름 속에서도 지역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급등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선 반면, 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가격 상승세를 기록했다. 광주는 거래 회복세가 제한된 가운데 가격도 정체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전국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전국 주택 매매건수는 17만3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만건 증가했다. 2022년 거래 절벽 이후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시기 괴리 국면이었던 2020~2021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광주와 전남 역시 거래량이 소폭 회복됐지만 분위기는 온도차를 보였다. 광주의 연간 주택 매매건수는 2020년 3만4000건에서 2022년 1만4000건까지 급감한 뒤 지난해 1만7000건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 거래량은 5000건 수준이다. 전남 역시 지난해 1만9000건, 올해 1분기 5000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다만 가격 흐름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전국 평균 호당 매매가는 지난해 4억9000만원에서 올해 1분기 4억5000만원으로 6.6% 하락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0억3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으로 14.6% 급락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제지정,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률을 기록했다. 전남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지난해 1억7000만 원에서 올해 1분기 1억8000만 원으로 7.9% 상승했다. 충북(5.2%), 대전(4.1%)보다도 높은 상승폭이다.

광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었다.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와 같은 3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상승도 하락도 크지 않은 '보합 시장'에 가까운 흐름이다.

3.3㎡당 가격 흐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 대비 8.6% 하락했지만 전남은 5.3% 상승했다. 광주는 0.8% 하락에 그쳤다.

전세시장에서는 두 지역이 회복이 걸렸던 가운데 전남은 2021년 1분기 635만원으로 전년 대비 7.6% 하락했다. 이는 2026년 1분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이다. 아파트로 좁혀보면 낙폭은 더 커진다. 전남 아파트 3.3㎡당 전세가 변화율은 전년 대비 -7.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6년 1분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이다. 아파트로 좁혀보면 낙폭은 더 커진다. 전남 아파트 3.3㎡당 전세가 변화율은 전년 대비 -7.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026년 1분기 전남의 호당 전세가는 전분기 대비 -14.9% 급락해 단기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광주 전세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됐다. 광주의 주택 호당 전세가는 2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7% 수준에서 사실상 보합을 유지했고, 3.3㎡당 전세가도 984만원으로 0.1% 상승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아파트 전세가 역시 3.3㎡당 1022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오르는데 그쳤지만,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도시들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황해은 기자 nab@gjdream.com